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나훔- 나훔 1:1-3, 로마서 12:19-21

정운돈 목사님

* **나:1-3**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 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 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 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 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 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의 발의 티끌이로다

* **롬12:19-21**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켜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 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 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 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 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 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 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모든 헌신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 대불가능한 영육 간의 문제와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있는 그 직장과 산업과 미래를 위해서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서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나에게 특별히 언약으로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그 말씀을 도전하여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에 게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 읍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는 말씀

중학교 때 신앙생활과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다. 대학교 4년 동안 기독교 인 교수님들을 다 찾아다니며 점심시간에 성경공부를 했던만 존경받는 경제 원론 교수님이 기독교인인 줄은 몰랐다. 인생을 살다보면 다양한 상황과 문 제들을 겪게 되지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세상과 문제에 속 지 말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 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 힘들고 어려운 일, 시춘기, 오춘기, 갱년기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속는 것은 거짓말이다. 성경의 램프들에게는 시춘기라는 방황 이 없었다. 그들은 평생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대통

령, 국회의원, 일론 머스크 같은 돈 많은 빅테크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 참 된 성공이 아니다. 대기업이 몇십 조를 벌어도 강대국의 제재 한 번에 날아 갈까 봐 불안에 떠는 것이 세상의 실체다. 참된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 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계속해서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노예생활, 광야 40년, 그리고 앗 수르, 바벨론, 로마의 속국을 거쳐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했다. 지금 도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사일을 쏘며 발버둥 치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고 끊임없이 채찍질하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자손이기에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 문제 앞에서 조금 정신 차렸다가 다시 타락하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우 리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한 참된 성공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실 것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은 실상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만이 영원한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히11:1)"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우리가 복음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12가지 근본문제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 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택하신 백성에게는 고난을 주어서라도 끝까지 지키시 지만, 백성이 아닌 자들(앗수르와 니느웨)은 영원한 심판에 버려두신다. 오 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확인하기를 바라 다. 교회 안에는 10년, 50년을 다녀도 여전히 유치원생처럼 어린 신앙을 가 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전도 한 번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며, 늘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할 성 속한 중간사역자와 증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제 실내서핑장에서 첫째는 계속 넘어졌는데, 어리고 덩치도 작은 둘째가 파도를 너무 잘 탔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린 둘째를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그런데 잠시 후 보 니 첫째 언니가 동생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구석에서 막 울고 있 었다. 남이 칭찬받고 잘되는 것을 진심으로 박수 쳐주지 못하고 시기하며 빠 지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의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 다. 예수 믿는 여정에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돈문제, 자존심 상하는 일, 가 정문제 등이 찾아온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 로 단련하시기 위해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축 복과 응답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최고의 영적 유익을 찾아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생명의 길을 여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라고 말씀하셨다. 동화 속 거지왕자가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어도 왕자의 신분이 변하지 않듯, 잠시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 오기를 바란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완벽하게 준 비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라.

서론

오늘 본문인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 앗수르의 수도 '니 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신 예언서이다. '니느웨'하면 과거 물고기 뱃속에서 나 와 3일 동안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 선지자가 떠오를 것이다. 요나는 니느웨 가 회개하자 화를 내며 끝까지 빠져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나훔서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예언서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멸망'만을 선포한다는 점이 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고 요나를 통해 회개의 기회까지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악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 끝까지 불신앙하 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참된 하나님의 자 녀인가, 선택받은 자인가?" 이 한 가지 질문에만 확실한 답을 가지면 된다. 그 확신이 없다면 지금 즉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 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인생을 영원히 불

잡아 주옵소서"라고 영접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문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단련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 이 WRC(세계렘넌트대회)에 모인 우리 후대들 중에서 세계 정치를 살리고 빅테크기업을 이끌며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어 세계복음화를 이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이다. 성공적인 영적 리더가 되려면 시기, 질투, 미움을 뛰어넘어 겸손히 배우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위런 버렛 조차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며 겸손한 태도를 강조했다.

1. 앗수르와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든 채찍 중 하나가 바로 앗수르(니느웨)였다.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전쟁과 노예생활로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대한 제국이다. 영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나의 개인적인 고통, 우울증, 가난, 질병, 가정문제 등 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상징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 안팎에서 별의별 이상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된다. 과거 청년사역을 할 때, 이름도 모르는 자매가 내가 자신과 사귀었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할까 봐 미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한 번도 친하게 지낸 적 없는 친구가 불쑥 다가와 "그동안 널 시기하고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말해 황당하고 화가 난 적도 있다. 이처럼 내가 잘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끌어내리려 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상의 비극을 보라. 육신의 정욕과 자존심, 감정에 사로잡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살면 결국 인생은 파멸로 향한다. 그러나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21)"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12장 19-20절 말씀처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 내 안의 분노와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떠올리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한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니느웨)는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내 가족 중에 있다. 창세기 3장(나중심), 6장(물질중심), 11장(성공중심)과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숭배의 저주가 내 가문과 내면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영적 문제가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 체질대로 욕하고 불평하며 시기하는 삶에서 벗어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문제 앞에서도 당당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

1) 앗수르의 만행과 니느웨의 멸망 앗수르는 BC.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갔다. 또한 이방 민족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와 이스라엘을 종교의 전시장으로 타락시켰다. 그 악독한 앗수르의 거대한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탄의 거대한 망대였던 니느웨는 BC.612년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 고고학적 발굴과 성경의 진리 수천 년 동안 고고학자들은 니느웨의 존재를 증명할 역사적 유적을 찾기 못했다. 그러나 1845년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레이어드가 땅속 깊이 파묻혀 있던 니느웨의 유적을 극적으로 발굴해냈다. 발굴된 유적들은 대영박물관에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다. 로마 제국보다 500년이나 앞선 병거벽화, 사자사냥벽화, 인면수신(人面獸身)의 기괴한 우상조각 등은 앗수르의 막강한 군사력과 잔혹함을 생생히 증명한다. 나훔서 1장 8절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고 예언했다. 니느웨의 거대한 유적들이 수천 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언의 말씀 그대로 홍수가 범람하여 뿔과 흙 속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묻혔기 때문이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과학책은 아니다. 과학과 역사를 넘어 초과학적인 책이다.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타락한 세상지식과 이념을 쫓으면 결국 더 어려움 그리고 파멸을 맞는다.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해야 한다. 그래야 협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다. 최근 유명했던 어떤 자기계발(自己啓發) 김미경 강사도 자신의 능력만 믿고 철저히 세상 성공을 쫓다가 코로나 때 완전히 망해 자살을 결심했었다. 그러나 목사인 언니의 전화를 받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주인이 된 헛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복음을 듣고 극적으로 살아났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있다고 했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다 살리는 참된 성공자 되길 축원한다.

2. 나훔서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

나훔서는 앗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두려운 예언이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1)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훔서 1장 3절은 "여호와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2)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산성 되신 그리스도 나훔서 1장 7절은 "여호와께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고 선포한다. 어려움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길 바란다. 12가지 인생의 근본문제와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니느웨' 앞에서도 절대 속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자연스럽게 전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등 300%의 위대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나이가 이 놀라운 복음을 나 혼자만 누리지 말고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남길' 자가 되어야 한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흠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기를 든 자, 7포인트의 참된 복음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누리기만 하면 된다.

3) 갈보리산의 언약과 참된 승리 나훔서 1장 15절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찬양한다. 이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갈보리산'을 의미한다. 갈보리산의 완전한 복음과 승리의 평화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훔서 1장 9절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고 확실히 약속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과 온갖 재앙이 영원히 끝났음을 선포하는 '복의 근원'이다. 나훔서 1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고 하셨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우울증, 가난, 시기, 질투, 무능, 영적 문제 등 사탄의 모든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니느웨(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매주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타락한 나의 옛 생각과 체질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비워야 한다. 둘째, 불평과 원망의 사람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셋째, 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꾸는 것이다. 넷째, 내 인생의 주인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비워야 한다.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참맛이요 기쁨이다. 다섯째,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사명과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축원한다.

결론

하나님께서 앗수르와 니느웨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강한 원수를 완전히 박살내실 것이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믿으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악하고 게으르며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준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결단코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렘넌트 후대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